

광주광산구새마을회 지역사회 “지도자” 공경문화 공감사회 “사랑나눔” 돌봄잔치

(사)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회장 안덕홍)는 지난 26일 광산생활문화센터 3층에서 2025 사랑나눔 돌봄잔치를 200여명 어르신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광산구청 박병규 구청장은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어르신들 사랑나눔 돌봄잔치에 건강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며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안덕홍 회장은 어르신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하며,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하며 “행사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정성을 모아주신 광산구협의회 유희권 회장, 광산구새마을부녀회 백영실 회장, 새마을문고광산구지부 안순자 회장, (전)구부녀회장제11대 제13대 (현)박정희 이

사, (전)광산구협의회 제12대 김영인 회장, (전)광산구협의회 제13대 김창삼 회장, 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 이사회, 광산구새마을회 나광열이사, 박순레이사, 오경만이사, 우중곤이사, 박석우이사, 류기화이사, 광전매일신문 전광춘대표, 신흥동새마을부녀회, 송정1동새마을부녀회 박귀례회장 광전매일신문 김지성, 광산구주민자치협의회 김대성회장, (사)전국민안전교육진흥원, 슬기로운재활병원 의료지원 등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준행 명예회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 사랑에 참여해주신 후원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행사로 광주광역시광산구새마을회 가족들은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과 효심이 지역사회에 더 깊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광주광산구새마을회사랑나눔돌봄잔치

이날 행사에서 난타공연, 라인댄스, 기타 동아리 어쿠스틱 하모니, 부채춤, 성인가요 민성아 가수의 심봤다, 남수봉 가수 친구야, 김영애 가수의 살기좋은

대한민국, 정철 가수의 만수무강, 한세희 가수의 섬진강아 흥겨운 트롯가수의 공연으로 축제의 흥겨움을 더했다.

/오덕근 기자

“할아버지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살겠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특별귀화자 초청 감사행사

“할아버지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대한민국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 귀화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27일 오전 광주 광산구 고려인광주진료소에서 “그날을 품고, 오늘을 함께 살다” 특별귀화자 초청 감사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뜻을 기념하고, 그 후손을 우리의 이웃이자 함께 하는 시민으로 따뜻하게 포용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길강득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자, 신

조야 고려인마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고려인마을 소개, 독립유공자 후손 이야기, 고려문화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4년 전 우리 국적을 취득해 중국에서 귀화한 후손 박림마(68·여) 씨는 “독립 투사였던 할아버지 덕분에 꿈에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적응하는데 걱정이 많이 됐지만 이웃주민들부터 모두가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잘 지내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2016년도에 귀화한 최순애(64·여) 씨는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었던 건 귀화를 적극 도와준 법무부 덕분에”이라며



“할아버지 명성에 누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초등학교 귀화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광산구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우가이 예고르(11)군은 서툰 한국어로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며 수줍게 인사를 전했다.

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심심일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과 직접 손으로 작성한 손 편지를 전달했다.

/이승원 기자

함평군 신광면, 폭염 선제 대응… 지난해 피해 가정 에어컨 설치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함평군 신광면은 지난 24일 지난해 여름 폭염으로 쓰러졌던 독거노인 가정에 에어컨을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어르신은 지난해 8월 연일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 속에서 집 안에서 탈진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마을 복지 이장이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이 없자 곧바로 가

정을 방문했고, 빠른 조치로 병원에 이송되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어르신은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해 더위를 견디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이후 냉방기기 미비, 외부 단절 등으로 인한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신광면은 지난해 폭염 피해를 교훈 삼아 폭염 대비 위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어르신을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에어컨 설치와 함께 전기안전 점검 등 종합 지원을 실시했다.



어르신은 “작년에 너무 더위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며 “그때 살았던 게 기억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렇게 찾

아와 에어컨까지 달아주니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감사를 전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장기요양기관 60세 이상 고령 종사자 대상

건보공단 광주전라제주본부 ‘안전운전 3.65’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6월 24일(화), 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전남·광주광역시 내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중 60세 이상 송영 제공 종사자 등 56명을 대상으로 ‘안전운전 3.65’ 교육을 실시했다.

‘안전운전 3.65’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도로교통공단 등 3개 기관의 협업을 통해 60세 이상 종사자들이 ‘오늘부터 365일 안전 운전’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기관에서 차량을 이용한 송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이다.

이날 교육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와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한 안전운전 수칙, 승하차 시 주의사항, 주요 낙상 사고 예방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회 중심의 교육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영희 본부장은 “노인보호차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송영(차량)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 기자



나주시의회,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물품 전달

나주시의회(의장 이재남)는 지난 26일, 나주 계산원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기부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전달식은 (유)에이스(대표 서진)와 ㈜일동축산(대표 김학선)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이재남 의장을 비롯한 김관용 부의장, 김강정 의회운영위원장,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 등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방문해 나주 지역자활센터 등 관내 사회복지 시설 10

곳에 한우 사골과 잡뼈를 담은 200여 박스를 전달하며,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재남 의장은 “무더위에 취약한 시민들이 건강한 여름날을 날 수 있도록 나눔 문화를 실천하신 서진 대표님과 김학선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 우리 의회도 나눔의 가치를 알리고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